

# 전북도, 친환경 전기차 산업 육성 총력

### 전기차 클러스터·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연구개발 지원 등 미래차 생태계 구축 박차

친환경차 중심의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전북도가 선제적 대응을 모색한다.

도는 14일 전기차 클러스터,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기반구축 및 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해 전북의 '전기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최근 자동차 산업은 미래형 자동차를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정부의 환경규제로 인해 친환경, IT융합, 안전기술 강화라는 키워드로 빠르게 개편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선정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전기차 육성 기반 구축 및 연구개발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등 전기자동차 개발·양산에서 보급까지 단계적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  
전북은 군산 외항,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국제공항(2024년 착공) 등 최적의 물류 및 수출 인프라와 함께, 자동차융합기술원, 실증테스트베드 등 국내 최고수준의 연구·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들 인프라를 바탕으로 군산 지역에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앵커 기업인 (주)명신을 중심으로 (주)대디스모

터스, (주)엔피에스코리아, (주)대창모터스, (주)코스타익 군산(국가) 및 새만금 산단 내에 전기차 집적화 단지를 구축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자동차를 생산할 예정이다.

오는 2024년까지 5,171억원을 투자해 전기자동차 24만대 생산 및 1,700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특히, 도내 자동차 업계는 올해 새롭게 예산을 확보한 '중견·중소 전기자동차 기반 협업센터 구축 사업'(2021~2024년, 사업비 200억원)이 전기차 클러스터 성공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협업센터를 통한 친환경 자동차 신산업 분야의 선제적 기술개발 및 시장 대응으로, 군산형 일자리 추진과 지역 신산업의 안정적 정착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전북도는 친환경차 부품소재 중심 특화와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지난 2019년 11월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 받아 초소형 전기자동차 운행 및 LNG 이동식 충전소에 대한 실증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의 경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인증기준을

완화에 제작에 드는 제반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신속히 사업화가 가능하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실증을 착수한 초소형 특수전기차(소방차, 쓰레기압축차, 이동식세탁차, 청소차)는 실증이 마무리되면 새로운 시장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지난해 8월 군산 친환경 자동차 부품기업 육성을 위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입주기업에게 법인세·소득세 등 세금 감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해 관련 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은 2025년까지 49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태계 기반 마련  
미래 전기차 산업 생태계가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에너지시스템 전주기 구축사업(210억원), 전기차 전장부품 고도화 정비구축사업(90억원) 등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기업지원에 집중 지원해 11개 사업 3,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또한, 전기 완성차 기업과 부품 기업들이 참여하는 '미래차 핵심부품 기술개발사업'과 '전기자동차 전용 플랫폼 개발' 등의 연구사업도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전기자동차의 메카' 전북 이미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친환경차 보급  
전북도는 미래 자동차로의 요충지로 만들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과 인프라 구축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전기자동차는 2020년까지 2,990대(승용 2,544, 화물 446)에서 2025년까지 2만3,766대(승용 1만4,400, 화물 5,976)를 보급할 계획(누적)이다.

수소차 분야는 2020년까지 27기였던 수소충전소를 2030년까지 24기를 구축하고, 수소차를 2020년까지 407대(승용 392, 버스 15)에서 2030년까지 1만4,400대(승용 1만4,000, 버스 400)를 보급할 계획(누적)이다.

전병순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친환경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은 전북 대도약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그린뉴딜의 핵심적인 요소다"며 "전북을 국가 정책과 연계한 미래차 전진기지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옛도랑 복원사업 추진

### 7개 시·군에 4억2000만원 투입 물길 상류 오염원 저감·관리 수질 개선·지역생태계 복원·주민 환경인식 개선 효과 기대

전북도가 물길 상류 오염원 저감을 위한 '옛도랑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옛도랑 복원사업'은 법정 정비나 관리계획에서 누락돼 있거나, 관리주체가 없이 방치된 지역의 소류지 또는, 마을 앞 도랑을 대상으로, 물길 상류인 도랑에서부터 주민과 함께 오염원을 줄이고, 관리해 수질 개선과 지역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9월 수요조사를 통해, 시·군 추진의지와 대상지 적정성 등을 검토해 7개 시·군(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진안군, 무주군, 고창군, 부안군)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4억2,000만원을 투입해 하천 유입 도랑에 대한 정비 등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경관 회복과 비점오염원을 적극적으로 제거할 예정이다.

각 시·군에서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의견 수렴과 도랑 복원 세부계획 수립 등 주민참여 복원 활동을 전개한다.

추진협의회는 후보 대상지에 대한 컨설팅 및 주민 협의 등의 타당성 확인 절차를 거쳐 대상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원계획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주민이 수질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오염저감 실천 활동, 교육 및 홍보 등의 주민실천사업을 지원해 직접적으로 주민 환경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도는 실효성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월별 대상지 수질 모니터링 및 실적 점검 등을 실시해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건의사항 등을 반영할 방침이다.

신병기 도 물환경관리과장은 "옛도랑 복원사업을 통한 수질 및 주민 환경인식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복원활동을 통해 민·관 협치 물관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정읍 종오리 농장 고병원성 AI 확진

### 전북도, 27일까지 매일 가금농장 일제 소독 캠페인 추진 반경 3km 이내 가금농장 3호 22만 마리 예방적 살처분 실시

지난 13일 정읍시 정우면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발견된 H5형 AI 환원이 고병원성으로 확인됐다.

전북도는 더 강력한 방역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2주간 매일 가금농장에 대한 일제 소독 캠페인을 적극 추진한다.

도는 14일 정읍시 정우면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내 12번째(정읍4, 임실1, 고창2, 남원2, 익산1, 부안2)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전북도는 반경 3km 이내 가금농장 3호 22만 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반경 10km 내 가금농장 45호 261만 마리는 30일간 이동제한과 함께 긴급 일제검사를 받게 되며, 발생지역인 정읍시 모든 가금농장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한편, 발생농장에 사육중인 종오리 9,000마리는 고병원성 확진 전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즉시 예방적 살처분을 완료했다.

도는 지난해 11월 말 이후 도내에서

고병원성 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가금농장 일제 소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파기간 동안 실시하지 못한 소독을 2주 동안 집중 소독해 야생조류로부터의 바이러스 전파 고리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가금농장은 자체 소독장비를 활용해 오는 27일까지 2주간, 2시부터 3시 사이에 축사 내·외부, 소류 차량과 물품에 대해 일제 소독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주변에는 시·군과 농협 소류 방역차, 광역방제기, 살수차 등을 총 동원해 매일 소독을 한다는 계획이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가금농가와 관계자가 잠시 소독 활동에 미진한 순간, 야생조류로 전국에 퍼져 있는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번 일제 소독 기간을 고병원성 AI 발생 차단 고리를 끊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 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60억원 부과

### 전년 대비 5000건·2억원 증가... 내달 1일까지 납부

전북도는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4만건 60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년 대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건수는 5,000건(2%), 세액은 2억원(3.4%) 증가한 것으로, 이동통신사 무선국 개설 및 전기사업허가(태양광) 시설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해,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시는 1만8,000원~6만17,500원, 기타 시지역은 7,500원~4만5,000원, 군지역은 4,500원~2만17,0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2월 1일까지이며, 시중은행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ATM, 위택스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중은행 금융앱, 스마트위택스 및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임노옥 도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가 다소 소액이지만 납부 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납기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해외입국자 수송지원단 근무자 격려하는 신열우 청장 (왼쪽) 소방청장이 14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 위치한 해외입국자 수송지원단을 방문해 해외입국자 수송지원단에 근무중인 현장대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소방청 제공>

**모집**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환영**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건강해소·웃음치료(힐링)·면접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장
- 한국스피치·음반협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 TEN 출연 및 강연자
- 스피치 컨설턴트      ○전주매일 부사장
-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말" "스피치 노하우"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학교명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 (주, 야간)	전주, 임실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 (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 (주, 야간)	군산, 부안, 서천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건강해소, 웃음치료 등) (주, 야간)	정읍, 고창
익산스피치(원광보건대)	스피치웃음치료(야, 주간반)(웃음자격증)	익산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치료(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치료(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 아)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